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삶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없으면 오만해 지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21일)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유례없는 韓日갈등에 불교계도 'No Japan'

지역사암연합회 차원서 번지는 불매운동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도 지역사암연합회들이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광복절인 8월 15일 창원 메가박스에서 '일본 불매운동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국민적인 불매운동에 불교계도 동참코자 마련됐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베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창원불교연합회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행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정부에 △역사왜곡 중단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은 "임진왜란과 국권피탈 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중대한 시기에 불교계가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자 결의대회를 기획했다"며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애국불교로의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암연합회 차원의 불매운동은 창원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8월 9일 회의에서 '무역보복 경제전쟁! 반성 없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광주 주요사찰에 설치키로 했다. 회의서는 연합회의 성명 발표와 일본정부 규탄 법회도 논의됐지만, 이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지역사암연합회가 아닌 개별 사찰이 직접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불자들에게 이를 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학생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 이하 대불련)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련은 8월 13일 "아베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약에 대해 위반이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나, 이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인지 못한 몰지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에 근간해 한일정부간 청구권 협약과 별개로 당시 일제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 또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불련은 〈법구경〉에서 번뇌를 늘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아베정권의 태도가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법구경〉에서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교만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번뇌는 늘어만 간다'고 설한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무조건적인 반일적 태도를 경계하며 아베정권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비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日아베 경제보복 조치에
주요사찰 현수막 내걸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

대불청 · 대불련 청년불자
아베정부 강력규탄 성명
과거사 사과 · 배상 촉구

같은 날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청년단체들과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로 구성된 '항일자주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지켜온 청년단체 일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협한 선동 중단 △양국 협력관계 해하는 만행 중단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 이행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청년들은 아베정권의 망동에 격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베정권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현 사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새 시대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관련 특별인터뷰 A3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정 교시를 대독하는 모습.

"韓日갈등, 3국불교 교류로 극복하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8월 13일 국난극복 교시 발표

한중일대회 3국 공동 선언문 등
종단차원 후속조치 계획 추진해

대북관계 악화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등 국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조계종 법통의 상징인 종정 진제 스님이 국난극복을 위한 교시를 발표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종단에 한중일 3국 불교협의회를 통한 교류를, 정치인들에게는 중도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국민과 함께해왔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면서 국난을 극복했고, 임진왜란 때는 서산 · 사명 · 처영 대사께서 일본과 화친을 맺어 구국호국하셨다"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께서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은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융무애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제 스님은 "우리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 없이 동체대비의 자비실현과 사바세계 생명평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한중일 삼국불교는 한일 양국의 존엄한 안보와 경제를 위해 조석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축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의미하는 종정스님의 이 같은 교시에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0월 중국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에서 동북아평화에 대한 3국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정예하의 이례적인 교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뜻을 모아 극복하자는 당부"라며 "종단은 우선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확대, 국난극복을 위한 축원으로 1천만 불자의 정성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전국 주요사찰에 현수막을 게재해 불자와 사찰방문객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29~30일 중국 광동성 주해시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서 동북아평화에 대한 3국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하안거 해제… 만행 나선 운수납자

조계종 98개 선원서 2000여 수좌 정진

불기2563년 기해년 하안거가 8월 15일 해제했다. 전국 선원에 방부를 들였던 2000여 수좌들은 걸망을 메고 만행에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8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4 · 비구니선원36)에서 총 1991명(총림270 · 비구1058 · 비구니663)의 수좌들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를 통해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화두 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태하거나 방일해서는 안 된다"며 "항상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자신의 공부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퇴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부처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로부터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고 여일한 정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4면〉

2019년 제3회 합동캠페인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재
(영가 천도 무료접수)
일 시 : 2019년 8월 25일(일) 오후3시
장 소 :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 광장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참여단체 화엄승가회 소속 24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TBN 부산교통방송,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녹색 · 의경어머니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 부산동문회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BBS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사 부산여성신문

38년 전통 승려 100 · 조계종 포교사 1,200 · 졸업생 1만6천여명 배출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유식30송 / 이만 교수 / 9/30(월)~10/4(금) / 13:30~16:30
■ 최봉수 교수 특강(무료) 번뇌의 조복과 신경가소성 8/12, 19, 26(월, 오후7시~9시)
하반기 입학식 : 2019년 9월 5일(목) 오후7시
기초교리학과 (6개월, 목)
기초 핵심교리 중심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강의
불교문화학과 (6개월, 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 불교문화전문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2018-000629)
경전대학원 (6개월, 화)
마성스님「아함경」
장생아카데미 (6개월, 화)
120세 건강장생법 한의사 각계 전문의 초빙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 051) 711-0700
서면 롯데 맞은편 신동아빌딩